

기도 집중의 기적

열왕기하 19:8-19, 사도행전 1:12-14

최정웅 목사님

[요약]

서론 : 기도의 의미(하나님과의 대화, 천국 창고의 열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는 눈) →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 1. 기도 집중의 이유 : 복음을 체험하기 위해서(왕하19:19),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왕하2:9-11, 행1:1-8), 시대의 흐름을 재창조하기 위해서(딤후2:1)
 - 2. 기도 집중의 방법 : 기도제목을 구체화하고(왕하19:9),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왕하19:11, 갈2:20), 함께 모여 공동체로 기도(행1:14)
- 결론 : 기도 집중의 결과 - 히스기야(18만 5천 군대를 꺾음), 초대교회(오순절) → 한 해의 마무리, 새해의 시작을 성령충만으로 하도록 기도 집중에 도전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참사랑교회가 지내온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십시오.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주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 마지막 주일에, ‘기도 집중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다.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자는 의미에서다. 함께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체험하는 행복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란다.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천국 창고 열쇠와 같은 것이다. 마 16:18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다. “땅에서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서 기도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쓸 수 있게 된다.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때 필요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다. 빌4:6-7은 말씀한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해답과 응답을 누리는 힘이 바로 기도라는 말이다. 기도가 무엇인가? 렘33:3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는 것이 기도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고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은혜받을 만한 때이고, 기도에 집중해야 할 때인 줄 믿는다.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다. 모든 능력은 사실은 집중에서 나온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므로 집중할 수 있으면 굉장한 힘이 생기게 된다. 특히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이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란다.

1. 첫 번째다. 기도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1) 우리가 왜 기도에 집중해야 하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은혜로 끝이 났기 때문이다. 이것을 한 번 확인해 보고 묵은 해를 정리하자. 그리고 새해를 맞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났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이다. 복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사실을 정말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응답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회복해야만 한다. 그 이름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체험해 보자.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모두 이기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분을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의 모든 문제는 그러므로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해서 끝이 난 것이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열쇠를 주셨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가장 큰 위기 앞에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구약 왕하19:19에서,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

가 홀로 하나님인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참 신이심을 체험하는 답이 바로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다.

(2) 두 번째 이유가 있다. 기도 집중을 왜 해야 하는가?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다. 우리의 힘으로는 현장을 살리기는커녕 현장에서 살아남기도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속에서 현장 살릴 힘을 얻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이것을 알았던 엘리사는 왕하2:9-11에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한 것이다. 이 힘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결론을 내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 그리고 성령충만을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체험해야 하기 때문에, 행1:4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하신 것이다. 현장 살릴 수 있는 기도의 답을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 현장 살리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 기도응답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현장 살릴 수 있다.

(3) 세 번째 이유다.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교인 숫자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고, 복음 전하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가 이 운동에 생을 거는 이유는, 시대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후대에게 재앙 시대가 오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 세상의 정치와 문화, 경제의 흐름을 장악한 세 단체는 귀신을 체험시키고 있다. 명상운동을 해서 깊은 뭔가를 체험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것을 정말 눈치챘다면, 우리는 문화와 지식의 근본 뿌리를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겠다. 이 일을 해야 하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이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참사랑 가족 여러분,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려면,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야 한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그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한 주간 서서 기도하다가 응답의 은총을 누리시길 축원한다.

2.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집중의 방법이 무엇인가?

(1) 구약 본문의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제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막연하고 허황된 것을 잡지 말고, 구체적인 것을 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용돈을 청구하는데, ‘이런 책을 사야 하고, 이번에 여행을 가야 하니까, 돈 얼마가 필요합니다’ 해야지, ‘적당히 주세요’ 하면 어떡하나. 구체적이어야 한다. 내가 어려서 시골에 살았는데, 도시에 나가 보니까 손수레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분이 있었다. 이가 많던 시절이었고 쥐가 많던 시절이었다. 이분이 장애인이었었는데, 말도 줄 어눌하다. 손수레를 밀면서 골목길을 다니는데, 이약과 쥐약을 팔았다. 그분이 하시는 말이 얼마나 웃기는지, “이약 사시오 이약. 쥐약 사시오 쥐약. 사려면 사시고 말려면 마시오. 누가 답답한지 봅시다.” (웃음) 이약, 쥐약이 없으면 안 되지 않나? 문명 시대에 사는 여러분은 웃지만, 그 시절은 참 처참한 시절이었다.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이라 하는데, 이약과 쥐약은 그래도 팔 수 있지만, 기도제목은 그래서 안 된다. 확실하고 분명한 제목을 정해서 하라는 것이다.

내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미국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쓴 책이다. 그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 연말이 되면 청지기주일에 잔치를 베풀다. 큰 홀을 빌려서 천여명의 교인들을 다 초청한다. 가족들이 다 와서 실컷 맛있는 것을 먹는다. 그리고 그 말미에 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발표한다. “내년에 우리 교회는 교육을 이렇게, 전도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선교는 이런 목표로, 사회 봉사는 이런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재정 담당하는 목사가 이것을 쭉 설명한다. “그래서 내년에는 120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예산을 그렇게 발표하는 것이다. 다들 잘 먹고 신나게 먹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나갈 때, 청지기 서약서를 받아간다. 그리고 집으로 가지고 가서 가족끼리 이야기한다. “금년 우리 교회 예산이 1200만 달러인데, 우리 집이 상류층일까, 중류층일까, 하류층일까? 얼마를 이 중에서 우리 집이 내야 할까?” 이것을 두고 교회 회원으로서 의논한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들딸들도 의논해서 어느 정도 내야 되겠다 하고 결정해서 가지고 온다. 이것을 나눠서 내기도 하고 한꺼번에 내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교회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하시되,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계획이 있어야 한다. 우리 교회에서 현금 1등을 한 가정이 있는

데, 6,350만 원 정도를 했다. 나는 많은 응답을 받았지만 이것은 기도응답을 못 받고 있다.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101번째 정도 헌금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 나를 못 이기는데, 우리 램버트들은 나를 이길 만큼 헌금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란다. ‘내년에 나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선동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년에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놀라서 자빠질 만큼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라.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내가 응답받아야 할 구체적인 문제, 사건, 사람들을 두고서 기도제목들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일천만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전 세계에 RUTC를 세우기 위해서, 헌당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내가 받아야 할 응답, 향후 3년 동안 내가 받아야 할 응답을 두고 간절히 기도해 보라. 집중해서 기도할 때는 그런 구체적인 기도제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청구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다. 지난번에 오셨던 조영택 목사님이 내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를 도왔는데, 45년 전에 5천 원을 도움을 받았었다. 그러다가 목사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그 다음 주 강단에서 선포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부터 자립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목사까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저 사람이 목사가 되더니 갑자기 왜 저러나,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하는 표정으로 다들 긴장해서 쳐다보는 것이다. “대신, 여러분이 고구마를 먹으면 나에게도 고구마를 주면 됩니다. 죽을 먹는다면 나에게도 죽을 주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쌀밥 먹으면 나한테도 쌀밥 줘야지.” 이랬더니 다들 까르르 웃더라. 그러면서 분위기가 풀렸다. “우리가 자립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다른 교회를 도와야 합니다. 당장 많이는 못 하더라도 1년에 7만 원은 도움시다.” 이 날 이후 44년이 흘렀는데, 한 번도 나는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30여 교회까지 도왔었다. 몇 만 원 도운 적이 없다. 아무리 적게 도와도 10만 원, 20만 원 이상 도왔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히스기야의 말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창조주시다. 그분이 ‘내 창조와 너희 창고를 잇대어 주겠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거저근성을 버려야 한다. 결단한 그날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구체적으로 제목을 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란다.

히스기야 임금의 지금 위기를 만난 것이다. 전 세계를 정복해 가고 있는 앗수르 군대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인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다. 산성인 예루살렘은 포위되면 굶어죽게 된다. 자식을 잡아먹는 처참한 지경까지 된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포위를 당한 것이다. 정말 큰 위기를 만났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앗수르 왕은 조롱하는 편지를 보내 왔다.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받았다. 이 편지를 가지고 교회에 가서, 그것을 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게 14절의 말씀이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여, 저 우상 섬기고 마귀 자녀인 저 자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구체적으로 펴 놓고

(2) 두 번째다. 지금까지 사람 앞에 섰었지만, 그것을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사람 눈치를 보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야 되겠다. 그것이 기도 집중의 방법이다. 15절에 말씀했다. “그들 위에 계신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하는 것이다. 이게 기도다. 하나님과 내가 마주하여 내 깊은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 진실을 토하여 아뢰는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어서 갈 데가 없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맞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인데,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게 맞는데, 왜 나에게 직장이 없습니까?” 왜 구하지 않는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지 않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특히 그렇게 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기도하라,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다만 내가 볼 때, 야곱 이후로는 다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십일조가 내고 여기에 성전을 짓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 주셨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열두 자녀와 엄청난 재물을 주셨는데, 야곱은 약속을 까마득히 잊었다. 숙곳으로 세겟으로, 양떼를 먹일 물만 찾아다녔지, 그 약속대로 드릴 뵘엘을 잊어버렸다. 그러다가 창33장에,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근방 부족들이 공격해서 자기 가족들이 몰살당할 그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

께 했던 약속을 회상한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애들이, 너희 모든 우상을 다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라. 옷을 다 세탁하라. 우리가 뵘엘로 올라가자. 내가 고향을 떠날 때, 밤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하늘 보좌에서 주님이 나를 지키시겠다고 내게 말씀을 주셨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주님께 한 약속이 있다. 뵘엘로 올라가자.” 그때부터 하나님은 먼저 주시지 않고, 하는 것을 봐 가면서 응답하시는 것 같다. (웃음) 제대로 해야 한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들 위에 서신 여호와여, 주는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방해하는 것들을 이기시기 바란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데 왜 응답이 안 되나?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능력을 초월해서 응답하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데, 절대 맡기지 않고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지 않나?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결산하고 믿음으로 계획했는지 돌아보고, 갈2:20으로 다 같이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다. 주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게 하는 내 속에 있는 다른 것들을 믿음으로 속히 제거해야 한다. 그때 정말 주님께 집중할 수 있다.

(3) 마지막 방법은 뭔가? 이런 기도의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뤄서, 모여서 기도 집중하는 것이다. 이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게 행 1:14이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랴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 에 힘썼더니, 행2장의 역사가 일어났다. 행4장의 역사가 일어났다. 행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죽게 되었을 때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차서 깨우고, 신을 들어 메고 감옥을 나서게 했다. 베드로는 환상을 보는 줄로 알았다. 16명의 군사가 감시하고 있는 감옥에서 사슬에 묶인 자가 어떻게 감옥을 나서나? 그런데 베드로가 사거리에 나와서 찬 밤공기를 맞으니까 그제서야 주의 천사가 자기를 풀어준 것을 알게 되었다.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집중해서 기도해 보라. 이번 주간에 우리는 계속 모이고 자주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직접 체험해야 되겠다. 정말 기도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공동체 기도 집중이 회복되는 한 주간에 되시기를 축원한다. 뭐가 안 되면, “아, 이것은 우리 인본주의로,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자.”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체험이 있으시기 바란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기도 집중의 답을 가지고 한 해를 바르게 마무리하고, 한 해를 바르게 시작해야 되겠다. 이번 주간은 2014년과 2015년이라는 2년을 응답으로 받느냐 아니면 놓치느냐 하는 것이 달려있는 굉장한 소중한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2년의 응답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히스기야가 딱 하룻밤 기도집중했는데, 앗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다 무너졌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다. 그날 밤에 몰살되어 버렸다. 마가다랴방 교회는 마가다랴방에 모여서 딱 열흘 동안 집중했는데 오순절 날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우리가 정말 기도 집중에 성공한다면 하나님은 세계를 변화시킬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성령충만을 누리도록, 흠어져서 또는 모여서 기도하는 기간을 깊이 가지게 되기를 축원한다. 기도 속에서 2014년을 잘 마무리하면서 감사를 정말 회복하고, 2015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응답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것 때문에 정말 성령인도를 받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한다. 기도 집중의 기적을 체험하는 한 주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마무리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새해를 위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사고를 버리고, 참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시며, 내 기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참으로 체험하는 주간이 되게 해 주시며, 응답과 말씀성취를 붙잡고 한 해를 마감하며 또 한 해를 시작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